The Econom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5. 7. 2

6월 한국 수출: 선방한 상반기, 문제는 하반기

경제/중국 | **백관열** | kyb1006@ls-sec.co.kr

6월까지는 선주문 효과로 선방. 문제는 하반기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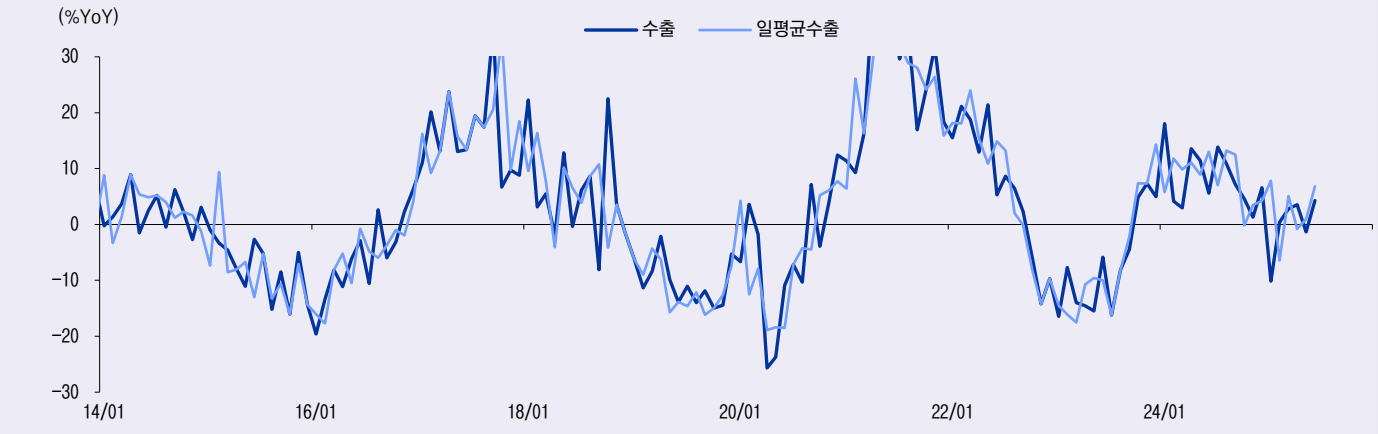
6월 한국 수출은 +4.4%YoY 증가한 598억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 기록.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도 +6.8%YoY 증가하면서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 달성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6개 품목이 플러스 기록.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4개월 연속 호실적을 기록한 동시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전월 대비 반등(-9.7% → -0.4%YoY)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모습. 자동차 수출의 경우에는 1)관세 영향, 2)미국 현지 생산 확대 영향으로 미국향 수출 둔화가 지속되었지만, 유럽의 탄소배출 강화에 힘입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유럽향 판매량이 확대되면서 플러스 전환 성공

국가별로는 미중과 나머지 국가가의 괴리가 확대되는 모습. 핵심 시장인 미국과 중국(각각 약 18%)향 수출 증가율 각각 -0.5%YoY, -2.7%YoY 전월(-8.1%YoY, -8.4%YoY) 대비 낙폭은 축소되었지만 역성장 지속. 아세안(약 16%)향 수출은 반도체 수출 확대로 -1.3%YoY → +2.1%YoY로 플러스 전환 성공. EU향 수출은 자동차 판매 호조로 4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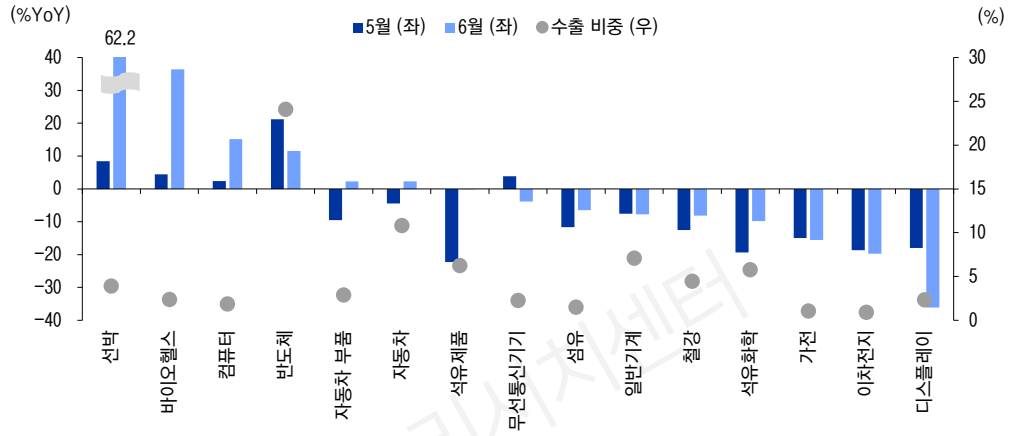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2025년 상반기 수출은 2분기에 관세 유예 조치로 선주문 효과가 연장되면서 우려 대비 선방한 결과(일평균 수출: +2.3%YoY)로 마무리되었지만 문제는 하반기. 관세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수요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 미국의 경우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우려까지 관측되고 있는 상황. 중국은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회복 중이지만 기울기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 그나마 유럽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미중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비중을 감안하면 전체 수출을 견인하기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관세와 무관하게 하반기 한국 수출 회복의 지속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그림1 **관세 유예 효과로 선방한 상반기 한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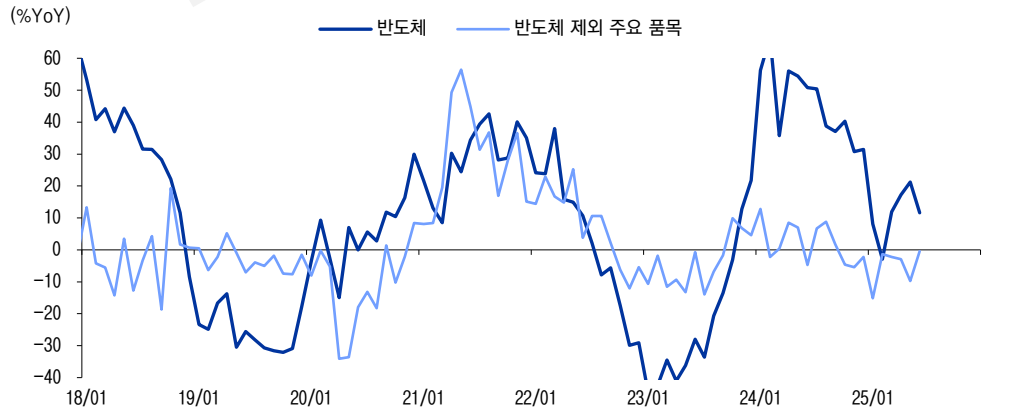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품목별 수출. 15 대 주력 품목 중 6 개 품목이 플러스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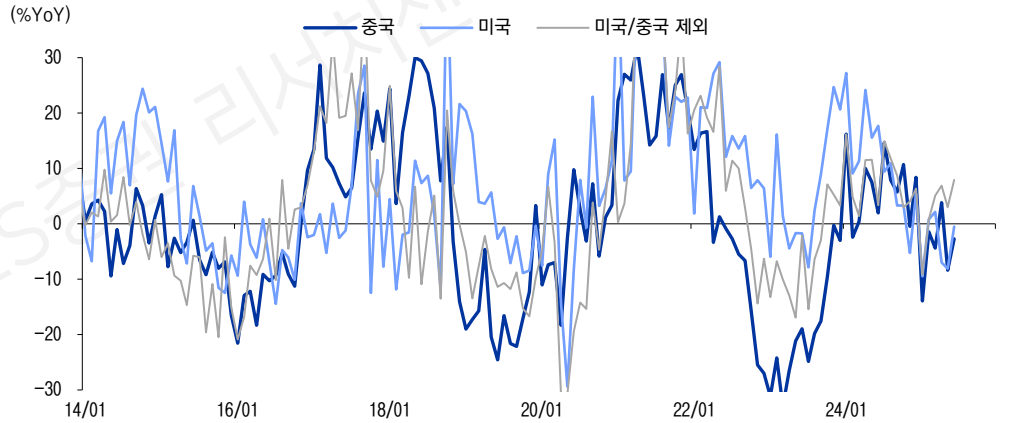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반도체한 제외한 품목은 여전히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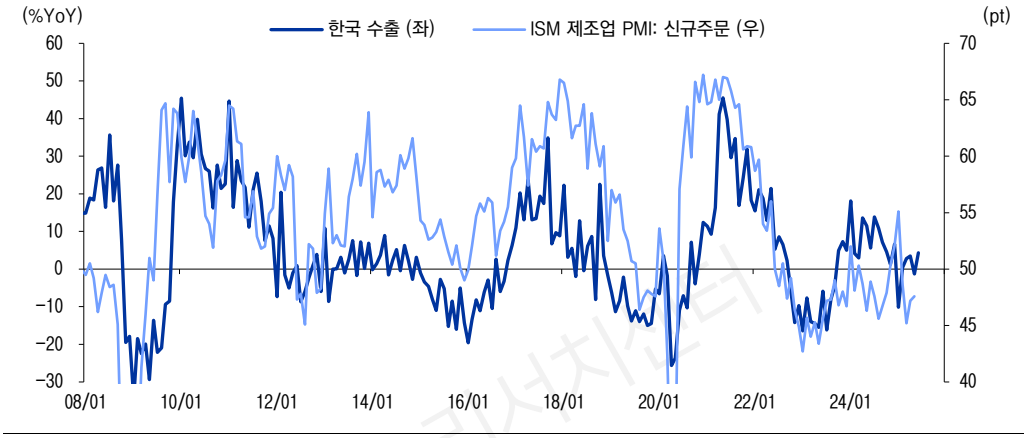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국가별 수출. 미중과 나머지 국가간의 괴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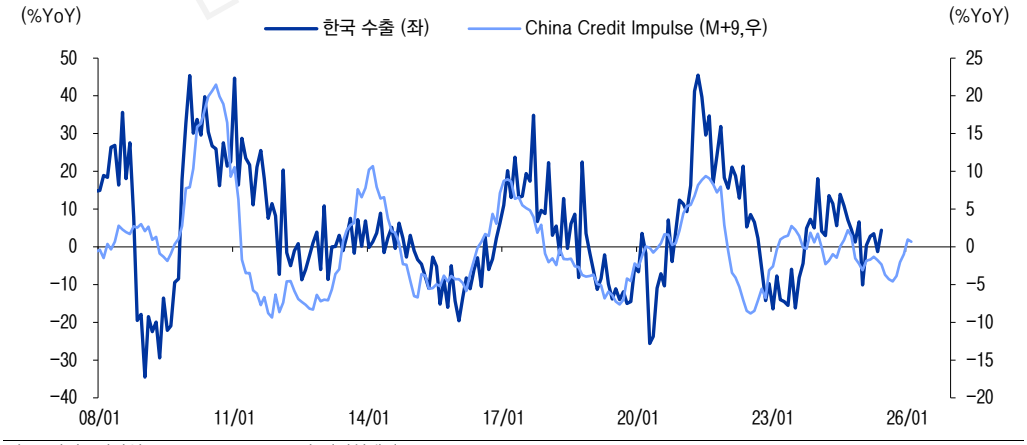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관세 부과 재개 + 경기 둔화 우려가 지배적인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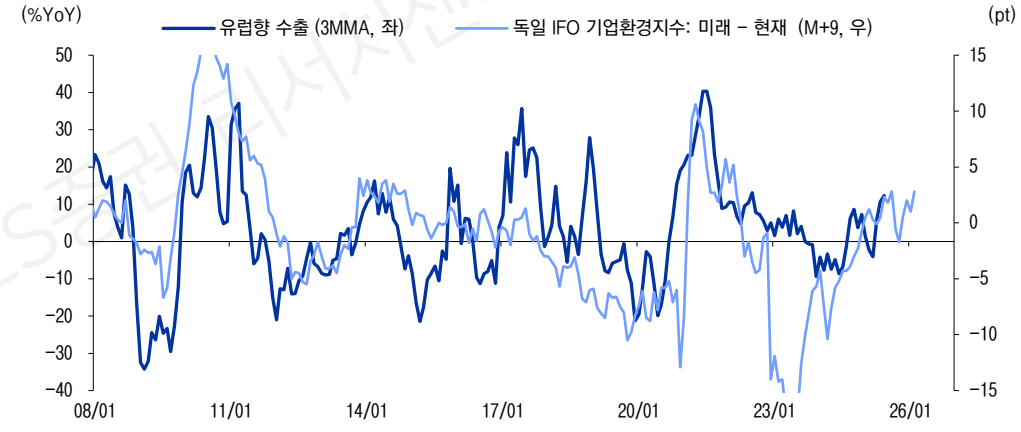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회복 방향성은 맞지만 기울기는 매우 완만할 중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전체 수출은 견인할 정도일 지는 의문인 유럽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fo Institute,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백관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